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한 행복도시 첫 장면, 국민과 공유한다

- 2007년 행복도시 기공식 핸드프린팅 18점, 국가유산청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 신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수장고에 행복도시 조성 과정에서 수집한 유물 9백여 점을 위탁 보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행복도시의 첫 출발을 상징적으로 담아 눈길을 끄는 유물이 있다.

2007년 행복도시 기공식에서 진행한 핸드프린팅 행사의 결과물 18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행복도시 건설에 이바지한 전·현직 주요 인사가 참여했다.

행복도시 기공식 핸드프린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의 실현인 행복도시가 탄생하는 역사적 순간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에 참여한 인물들의 직접적인 흔적을 담고 있다는 희소성과 핸드프린팅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이 같은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에서 주관하는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에 해당 유물을 신청하였으며, 향후 국립박물관단지의 관련 전시와 콘텐츠 개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신 행정수도 건설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핸드프린팅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신청”이라며, “앞으로도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나온 소중한 유물들의 상징성과 가치를 지

속적으로 찾아내 국민과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 핸드프린팅 사진

담당 부서	시설사업국 국립박물관단지팀	책임자	팀 장	경찬호 (044-200-3350)
		담당자	연구관	정선희 (044-200-3344)





< 노무현 전 대통령 핸드프린팅 >



사진 출처 : 노무현재단(반드시 명시)

<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 핸드프린팅 사진 자료(2007.7.20.)>